금도끼 은도끼

산골마을엔 성실하고 착한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에겐 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선

매일같이 열심히 나무를 베러 가야 했어요.

하루는 지게를 짊어지고 산속으로 향했어요

어디에 좋은 나무가 있을지 찾다가

마땅한 장소를 발견한 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내리 찍었어요

착한 나무꾼은 한가득 나무를 해서 어머님 약도 사고

맛있는 반찬도 해드릴 생각에 들떠 있었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져 실수로

낡은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가진 거라곤 낡은 지게와 쇠도끼가 다인 나뭇꾼은

이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되었답니다

연못 앞에 나무꾼이 슬프게 울자

산 신령님이 나타나게 되죠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여 주면서 이것이 네 것이냐 묻지만

착한 나무꾼은 내 것은 쇠도끼라고 합니다

그 말에 감동받은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모두 주게 되죠

도끼 세 개를 가진 나무꾼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답니다

착한 나무꾼이 도끼 3 종세트를 산신령에게 받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나자

아랫마을 나무꾼도 그 연못에 가서 일부러 쇠도끼를 빠뜨립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똑같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 묻자

욕심 많은 아랫마을 나무꾼은 망설임없이 내 것 이라며 달라고 했죠

나무꾼의 거짓말에 노한 산신령은 호통을 치면서

쇠도끼마져 가져가 버렸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보지만 산신령님은 홀연히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욕심 많은 나뭇꾼은 후회했지만 더이상 대답이 없는 산신령 님이었어요.

부정직하게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네요.